

라이고지 절과 다카기 가문 · 단난번 관청

단난의 라이고지 절은 원래, 나라시대에 교기 스님이 건립하여 비샤몬인이라 칭했다. 이후 헤이안시대 말기인 1131 년에 유즈넨부쓰종파의 개조인 료닌 스님이 아미타여래를 안치하는 불당을 건립하고 ‘유즈넨부쓰 줯카고 쓰지모토 다이칸진 비샤몬 아미타지 절’ 이라 칭했다고 한다.

유즈넨부쓰종파는 일시적으로 쇠퇴하였으나, 가마쿠라시대 말기에 다이넨부쓰지 절(오사카시 히라노구)의 7 대 주지 호묘 스님이 종파의 부흥에 노력하였다. 호묘 스님은 개조 료닌의 성스러운 유적으로 알려진 아미타지 절이 황폐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스고 신사(가와치국 단난군, 현 사카이시 미하라구 스고)에서 손에 넣은 아미타여래화상을 안치하여 이 절을 중흥시켰다. 1324 년에는 절 이름을 아미타지 절에서 ‘가와치 줯카고 롯폰베쓰지 쇼부쓰야마 고넨인 라이고지 절’ 로 개칭하였다.

라이고지 절은 에도시대가 되자 호묘 스님과 유서 깊은 사원으로 유즈넨부쓰종파의 교구본사가 되어 가와치국의 단보쿠, 단난, 야카미군, 셋쓰국의 히가시나리, 니시나리, 구다라, 스미요시군에 있는 39 개의 절을 말사로 두었다. 호묘 스님의 가사가 오늘날에 전해지는 동시에 경내 묘지에는 호묘 스님의 부도를 볼 수 있다.

본당 뒤쪽 정원에는 수령이 600 년이 된다는 향나무가 있는데 오사카부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23 년 미카와(아이치현) 이래 직속 가신이었던 다카기 마사쓰구에게 단난의 영지를 하사하여 다카기 가문은 1 만석의 다이묘로 단난번의 영주가 되었다. 단난번은 라이고지 절의 동쪽에 관청을 두었고 번이 폐지되는 1868 년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난번은 에도시대 동안에 가와치국 단난군, 단보쿠군, 시키군의 20 여 마을을 다스렸다. 라이고지 절은 다카기 가문의 보리사로 본당에는 번주 대대의 위패가 세워져 있으며 초대 마사쓰구와 11 대 마사아키의 오륜탑도 라이고지 절 묘지에 세워져 있다.